Clarinet Concerto No. 2 in E♭ major, Op. 74

- □□

정보

개요
곡명: Clarinet Concerto No. 2 in E-flat major, Op. 74, J. 118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 (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장르: 독주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 시기: 1811년 초연: 1811년 11월 뮌헨, 하인리히 요제프 베어만 (Heinrich Joseph Baermann) 독주. 정확한 날짜는 11월 15일과 25일로 자료가 갈린다. 성격: 오페라의 긴 선율, 넓은 음역 도약, 폴로네즈풍 피날레를 한 작품 안에 묶은 밝은 E♭장조

협주곡 IMSLP: Clarinet Concerto No. 2 in E-flat major, Op. 74 (Weber, Carl Maria von) Wikipedia:

Clarinet Concerto No. 2 (Weber)

베버의 제 2 클라리넷 협주곡은 하인리히 요제프 베어만의 음색과 기교를 위해 쓰인 세 악장 작품이다. 1811년 4월 뮌헨에서 베어만이 베버의 Concertino를 연주한 뒤 바이에른 국왕 막시밀리안 1세가 두 클라리넷
협주곡을 의뢰했고, 제 2번은 그해 여름에 완성되었다 . 1악장 Allegro의 개방적인 관현악과 독주자의 큰 도약, G단조 2악장 Romanza의 성악적 호흡, E♭장조 3악장 Alla Polacca의 춤 리듬이 서로 다른 무대 장면처럼 이어진다. 독주 클라리넷은 낮은 샬뤼모 음역의 온기부터 높은 음역의 빛나는 기교까지 한 호흡 안에서 오간다.

출판 정보와 판본

베버 전집 (Weber Gesamtausgabe)은 이 작품을 WeV N.13, JV 118, Op. 74로 등록하고 1811년 7월 17일 완성으로 제시한다. 모건 라이브러리의 자필 총보는 1811년 7월 뮌헨에서 작성되었으며 , 표지에는 베어만을
위한 Gran Concerto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베어만이 각 악장 옆에 적은 연주 시간은 1악장 10분, 2악장 8분, 3악장 8분 30초였지만, 뒤의 두 숫자는 지워진 상태다. 이 메모는 일정한 연주 시간을 정한 지시라기보다 당대 연주자가 작품의 규모를 가늠한 흔적으로 읽을 수 있다.

베버가 관여한 슐레진저 (Schlesinger) 초판은 1825년에 나왔다. 1822년부터 출판 협상이 진행되었고 , 1825 년 광고와 초판 자료가 이 연대를 뒷받침한다 . 카를 베어만이 19세기 후반에 만든 독주부와 편집판은 새로운 운지, 슬러, 셈여림 표시를 더했으며, 오늘날의 판본에서 베버의 원고와 함께 비교 대상이 된다. 1813년 또는 1814년 출판설은 일부 목록에 남아 있지만, 이 작품의 초판 연대로는 1825년 자료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르베르트 게르치가 편집한 헨레 HN 732는 베버의 총보를 바탕으로 한 Urtext와 카를 베어만 계열 독주부를 나란히 제공한다. 헨레의 주석은 자필 총보 A와 B, 초판, 후대 베어만 판본이 서로 다른 표기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한다. 자필 자료에서 2악장은 Andante, 3악장은 Alla Polacca로 적혀 있고, 초판의 3악장은 Polacca로 나타난다. 따라서 Romanza. Andante con moto와 Alla Polacca라는 제목은 현재 유통되는 판본의 표기이며
, 모든 자필 표제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쇼트의 Eulenburg 판본은 3악장 119–126마디의 개정된
독주부를 부록으로 싣는다. 카를 베어만이 1868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얀스에게 보낸 편지도 이 부분의 삭제와 변경을 언급하지만 , 수십 년 뒤의 회고이므로 1811년 베버의 최종 의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소요 시간

전곡은 연주 속도와 판본에 따라 대체로 22–23분 정도 걸린다. 찬도스의 베버 클라리넷 작품 음반은 제 2번을 22분 08초로 기록하며, 1악장 8분 24초, 2악장 7분 19초, 3악장 6분 23초로 나눈다. 마르틴 프뢰스트의 BIS 녹음은 21분 53초이고, 사비네 마이어와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녹음은 22분 16초다. 실제 연주에서는 빠르기, 반복, 카덴차의 선택에 따라 몇 분의 차이가 생긴다.

편성

원래 관현악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독주 : B♭ 클라리넷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바순 2
- 금관 : E♭ 호른 2, E♭ 트럼펫 2
- 타악기 : 팀파니
- 현악 :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현대 악보와 연주회에서는 B♭ 클라리넷 파트를 사용한다. 관악 합주용 편곡은 악기와 성부 배치가 원곡과 다르므로, 원래 관현악판의 편성과 구분된다.

악장 구성

악장	표기와 조성	음악적 초점
I	Allegro, E♭장조	관현악의 밝은 제시와 독주 클라리넷의 넓은 도약
II	Romanza. Andante con moto, G단조	오페라 아리아를 닮은 긴 선율과 중간의 어두운 장면
III	Alla Polacca 또는 Polacca, E♭장조	폴로네즈 리듬, 싱커페이션, 빠른 독주 패시지

I. Allegro

1악장은 E♭장조의 힘찬 관현악으로 문을 연다. 찬도스 해설은 이 악장을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하고, 다른 해설은 협주곡형 소나타 알레그로에 가까운 구조로 본다. 관현악이 공적인 축제의 몸짓을 제시하면 독주 클라리넷이 그 사이로 들어와 긴 선율과 짧은 장식을 번갈아 펼친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도약은 베버만이 사용한 악기의 음역을 과시하면서도, 기교의 나열보다 오페라 인물의 말투에 가깝게 들린다.

이 악장은 주제의 윤곽이 또렷한 만큼, 빠른 음형과 긴 호흡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베버의 관현악은 독주자를 두껍게 덮기보다 목관의 응답과 현악의 추진력으로 다음 진입을 준비한다. 독주부의 음역을 고르게 채우기보다 낮은 샬뤼모의 부드러운 색과 높은 음의 선명함을 대조할 때, E♭장조의 외향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II. Romanza. Andante con moto

2악장은 G단조의 Romanza다. 자필 총보에는 Andante라고만 적혀 있지만, 초판과 현대 판본에는 Romanza 또는 Romanze가 덧붙어 있다. 찬도스 해설은 6/8박자의 노래하는 선율, 중간부의 어두운 색채, 짧은
레치타티보를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설명한다. 다른 일반 해설에는 짧은 카덴차가 언급되지만 , 그 위치와
베버의 원문 귀속은 판본마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 파멜라 웨스턴의 Fentone F440 판본이 세 가지 제안
카덴차를 따로 제시하는 사실도 이 연주 전통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클라리넷은 이 악장에서 성악가처럼 호흡한다. 한 음을 길게 유지하는 동안에도 음색과 압력을 조금씩 바꾸고, 장식음은 선율의 끝을 꾸미는 대신 말의 억양처럼 배치한다. 중간부의 어두운 정서는 1악장의 밝음을
부정하기보다 , 같은 독주자가 다른 배역으로 변하는 순간을 만든다. 다시 처음의 노래로 돌아올 때에는
피날레의 춤을 예고하는 선명한 윤곽보다, 숨이 가라앉는 과정을 들려주는 편이 이 악장의 성격과 잘 맞는다.

III. Alla Polacca

3악장은 E♭장조의 폴로네즈풍 피날레다. 자필 A와 B에는 Alla Polacca, 1825년 초판에는 Polacca가 적혀
있어 제목의 차이가 판본에 따라 남아 있다. 점리듬과 싱커페이션이 행진과 춤의 중간쯤 되는 추진력을 만들고, 클라리넷은 빠른 패시지와 큰 도약으로 관현악의 리듬을 가볍게 비튼다. 쇼트 판본이 제시하는 119–126마디 부록은 이 악장의 독주부가 초기 자료와 후대 연주판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베버의 1811년 7월 7일 일기에는 베어만을 위한 Polacca를 썼다는 메모가 있다. 이 짧은 기록은 피날레가
협주곡 전체를 완성한 뒤 붙인 일반적인 춤곡이 아니라, 독주자의 무대와 순회 연주를 염두에 두고 준비된
악장임을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까지 선율의 억양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른 음형의 탄력을 유지해야 하며, 관현악은 팀파니와 금관의 축제적인 색채로 종결을 밀어 올린다.

요크의 Digital Baermann은 베어만 계열 자료에 나타난 빠르기 표시로 1악장 4분음표 =108, 2악장 8분음표 =92, 3악장 4분음표 =100을 소개한다. 이 수치는 특정 사료의 표기이지 모든 현대 연주에 적용하는 고정값은 아니다. 실제 음반에서는 같은 악장도 더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며, 독주자의 호흡과 관현악의 반응에 따라 춤의 탄력이 달라진다.

초연과 초기 공연

첫 연주의 날짜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헨레 서문은 1811년 11월 15일 뮌헨 초연을 적고, 찬도스
북클릿과 Wind Repertory Project, Klassika는 11월 25일로 제시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1811년 11월 뮌헨이며, 초연 독주자는 베어만이다 . 일부 일반 목록이 1813년 12월 25일을 초연일로 기록하지만 , 이를 뒷받침하는 1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811년 뮌헨 기록과 같은 무게로 다루기 어렵다.

이듬해의 공연 기록은 작품이 베어만의 순회와 함께 빠르게 퍼졌음을 보여 준다. 1812년 1월 14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공연과 3월 15일 베를린 왕립 극장 공연은 당시 광고와 평론에서 제 2번 협주곡으로 식별된다. 베를린 평론은 베버와 베어만의 연주가 이미 프라하에서 주목받았다는 맥락도 전한다. 이런 자료는 정확한 뮌헨 초연일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작곡 직후 독주자와 작품이 함께 이동한 경로를 확인해 준다.

연주와 녹음

베어만이 사용한 클라리넷은 19세기 초의 다중 키 악기였다. 역사적 클라리넷 연구는 9–12키 악기라는 범위를 제시하고, 데이비드 픽손의 노스텍사스대학교 학위논문은 10키 악기와 베어만의 연주 관행을 연결한다. 제작자와 정확한 모델, 초연 당일의 악기를 하나로 특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역사적 운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과 현대 B♭ 클라리넷의 안정된 발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선택으로 남는다. 헨레가 베버 계열 독주부와 카를 베어만 계열 독주부를 병렬로 제공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비네 마이어,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85년 EMI 녹음은 제 2번을 22분 16초로 연주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평론은 마이어의 높은 음역을 금속성으로, 2악장을 오페라적인 선율로 들었으며, 에두아르트 브루너의 더 빠르고 긴박한 접근과 대비했다. Gramophone의 다른 평론은 마이어의 기술적 통제와 Romanza의 선율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1악장의 유연한 빠르기가 때때로 과장된다고 보았다. 두 평론은 작품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기보다, 특정 녹음에서 들리는 해석을 설명한다.

카리 크리쿠, 사카리 오라모,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녹음에 대해 Gramophone은 독주자의 넓은 음역과 유창함, Romanza의 표현력, Polacca의 우아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르틴 프뢰스트, 장자크 캉토로프, 타피올라 신포니에타의 BIS-SACD-1523은 21분 53초로, MusicWeb은 빠른 1악장과 낮은 음역의 부드러운 색을 관찰하면서 강한 기교와 선율의 흐름을 함께 평가했다. All About Jazz는 이 연주에서 제 2번의 활기와 놀이성을 들었다. 서로 다른 녹음은 같은 악보가 빠르기, 음색, 장식의 선택에 따라 얼마나 다른 극장성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주요 자료

- Weber Gesamtausgabe, 제 2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기록: 작품 번호, 조성, 1811년 7월 17일 완성일.
- Henle HN 732 작품 페이지, 서문 PDF, 주석 PDF: Urtext와 베어만 독주부, 자필·초판·후대 판본의 관계.
- Morgan Library, 1811년 자필 총보: *Gran Concerto* 표제와 베어만의 시간 기재.
- The Digital Baermann, Weber Concerto No. 2: 자필·초판·1870년 판본 비교와 빠르기 표시.
- Weber Gesamtausgabe, 1811년 7월 7일 일기: 베어만을 위한 Polacca 메모.
- Weber Gesamtausgabe, 라이프치히 공연 기록 및 베를린 공연 기록: 1812년 초기 공연과 동시대 반응.
- Schott Eulenburg, Konzert Nr. 2 Es-Dur: 원래 관현악 편성, 악장 표기, 3악장 119–126마디 부록.
- Frank Heidlberger, Part I 및 Joachim Veit, Part II: 클라리넷 협주곡의 사료와 편집, 베어만의 개입.
- Chandos CH241-36 북클릿: 악장 해설과 사비네 마이어 음반의 트랙 시간.
- Pamela Weston, Fentone F440 판본 소개: 베버·카를 베어만 독주부 병렬과 제 2악장 카덴차 제안.
- Historical Clarinets, Weber Concerto No. 2, David A. Pickthorn 학위논문: 시대 악기의 키 수와 베어만 연주 관행.

MusicWeb International, 사비네 마이어 음반 평론 및 Gramophone, 마이어 음반 평론: 특정 녹음의 음색 ·빠르기 ·선율에 관한 비평.
Gramophone, 카리 크리쿠 음반 평론: 음역, Romanza, Polacca에 관한 청취 평가. MusicWeb International, 마르틴 프뢰스트 음반 평론, BIS 북클릿, All About Jazz 평론: 프뢰스트 녹음의 시간과 독립 비평.
Alfred Music, 현대 B♭ 클라리넷 파트 정보: 현대 판매판의 독주 악기 표기.